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을 : 물은 진실로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지만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겠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 ① 갑은 본성에 선이나 악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타고난 도덕적 본성의 함양(涵養)을 강조한다.
- ③ 을은 의로움의 실천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추구한다.
- ④ 을은 마음에 있는 사덕(四德)의 보존과 실현을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양지(良知)가 교육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본다.

2.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옳은 것은? [3점]

색(色)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사물은 그 실상이 공이다. 거기에는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 ① 오온(五蘊)의 무상함을 부정하여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다.
- ② 바라밀(波羅蜜)을 실천하여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 ③ 연기(緣起)를 깨달아 고정 불변의 자아를 확립한다.
- ④ 불성(佛性)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⑤ 허심(虛心)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

3. 다음의 사상적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지니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인 기원을 갖는다. 개인의 정체성과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는 단순한 결사체 그 이상의 것이다.

——< 보 기 >——

ㄱ. 원자적 자아보다는 관계적 자아를 강조한다.
ㄴ. 인간의 개체성보다는 인간의 사회성에 주목한다.
ㄷ. 개인에게 어떠한 희생도 요구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ㄹ.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 B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 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해 준다.
(나)	A . 그러면 사람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다. B .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A	B
①	항심(恒心)을 갖게 하라	항산(恒産)을 갖게 하라
②	예법(禮法)을 따르게 하라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라
③	분별적 지혜를 쌓게 하라	마음을 비워 사욕이 없게 하라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게 하라	사회적 이익을 똑같이 나누게 하라
⑤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게 하라	희귀한 재화를 중히 여기지 않게 하라

5.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생산 계층은 사유 재산을 소유하지만, 통치 계층은 소유하지 않는다. 생산 계층은 통치 계층에게 의 · 식 · 주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통치 계층은 좋음의 이데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을 :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 수단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생산 수단이 사회적 공유물이 되면 계급 투쟁이나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 ① 갑은 성숙한 영혼을 가진 철인(哲人)이 통치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 ② 갑은 각자의 본분에 맞는 덕이 잘 발휘되는 것을 정의로 본다.
- ③ 을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 ④ 갑은 모든 계층의 조화를, 을은 계급의 소멸을 지향한다.
- ⑤ 갑, 을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소멸된 사회를 지향한다.

6.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요일

칼럼

인류의 삶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이데올로기의 폭풍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중략)…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은 이데올로기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관념의 체계로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고 현재 어떠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왜 서로 협력하고 왜 서로 적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 ㉠’ 라고 말할 수 있다.

- ① 이데올로기가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②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수단이다.
 ③ 이데올로기가 가치 중립을 유도하는 규범이다.
 ④ 이데올로기가 이미 사라진 과거의 유물이다.
 ⑤ 이데올로기가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이다.

7.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동기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어떤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도덕성은 아무 상관도 없다. 동기가 의무감 때문이든 아니면 행위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

- ① 덕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만이 옳은 행위이다.
 ② 양심에 따라 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③ 이타심에서 나오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④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8.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善)이 무엇인지 알면서
어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

하지만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가끔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2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알면서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선생님의 견해는 (가)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선의
실천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4

- ①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악을 행할 수도 있다
 ② 쾌락을 동반할 경우에만 선을 행할 수 있다
 ③ 악을 선으로 잘못 알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④ 무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다
 ⑤ 선의 이데아에 대해 알아야 선을 행할 수 있다

9. 다음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을의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세상의 모든 사물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까닭과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으니, 이것을 이(理)라고 합니다. 이것을 터득하게 되면, 삶이 지극함에 이르러 의혹됨이 없을 것입니다.

을 : 아닙니다. 마음의 본체[體]는 성(性)이고, 성은 곧 이(理)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의 이치가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효의 이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제가 (가) 고 보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 ㄱ. 먼저 도리를 알고 난 뒤 실천에 옮겨야 한다
 ㄴ.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는 격물(格物)을 해야 한다
 ㄷ. 학문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ㄹ. 사욕(私慾)을 없애서 천리(天理)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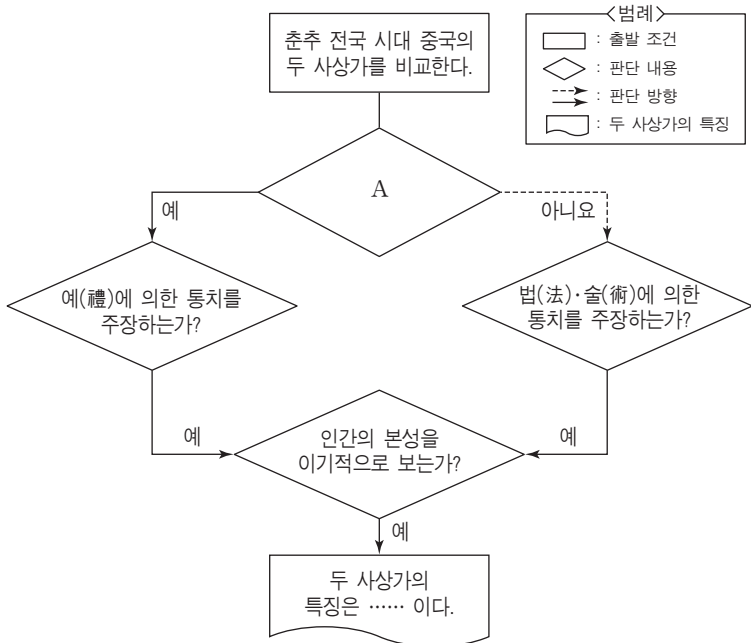
10.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자연의 사물들이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들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는 지성적 존재, 즉 인격신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신을 통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을 : 신 앞에서 대중은 없고 삶의 주체인 나만이 있을 뿐이다. 신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것, 즉 나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진리를 발견한다 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 ① 갑은 진리의 상대성을, 을은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② 갑은 이성보다 신앙을, 을은 신앙보다 이성을 중시한다.
 ③ 갑은 종교적 덕의 실천을, 을은 참된 실존의 회복을 중시한다.
 ④ 갑, 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우주의 필연적인 질서에 대해 관조해야 한다고 본다.

11. 두 사상가를 비교한 그림에서 A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민본주의에 근거한 혁명을 인정하는가?
ㄴ. 도덕 사회 구현을 위해 인의를 중시하는가?
ㄷ. 통치에 있어서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는가?
ㄹ. 교화를 통한 백성들의 성정(性情) 변화를 인정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서양 윤리 사상가 갑이 <문제 상황> 속의 L씨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행동은 이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안내될 뿐이다. 혐오 또는 선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은 고통 또는 쾌락에 대한 예상 때문이다.

〈문제 상황〉

택시 기사 L씨는 손님이 내리고 난 뒤, 300만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 L씨는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다. 그래서 돈 가방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① 돈 가방을 분실한 사람의 불행에 공감해야 합니다.
②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③ 자기 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신의 계율을 따라야 합니다.
④ 정언 명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타당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⑤ 돈을 분실한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13. 밑줄 친 ‘나’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나’는 만물을 아끼기는 하지만 어질게 대하지는 않으며, 백성을 어질게는 대하지만 친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친한 이를 친애하고 나서 백성을 어질게 대해야 하며,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나서 만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 ① 무명(無明)으로부터 벗어나 자비를 베푼다.
② 심재(心齋)를 통해 제물(齊物)에 이르도록 힘쓴다.
③ 자기를 수양(修養)하여 이웃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④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쌓아 자연스러움을 회복한다.
⑤ 존비친소(尊卑親疎)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대한다.

14. 그림은 이상 사회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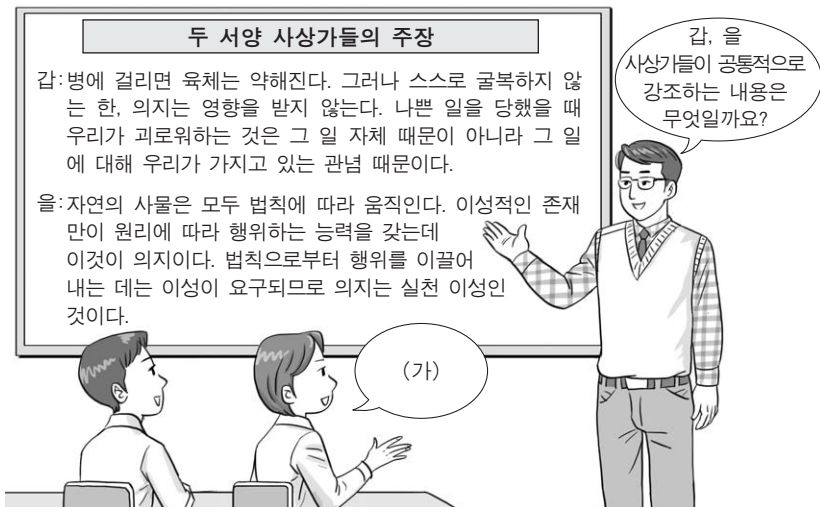
- ① 갑은 사적 소유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② 갑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무정부 사회를 강조한다.
③ 을은 바람직한 정치 체제로 대의 민주제를 주장한다.
④ 을은 상호 연대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 실현을 추구한다.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에 기초한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다음은 조선 시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옛 성현이 “자신의 사욕을 이겨내어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분명 인이란 사람의 공(功)으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중국 송대(宋代)의 어느 학자는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생성케 하는 마음으로서 사람이 그것을 얻어 마음으로 삼으니, 인이 마음의 덕(德)”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라고 생각한다.

- ① 인(仁)이 천리(天理)라는 것을 간파한 주장이다.
② 덕은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간파한 주장이다.
③ 덕이 본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무시한 주장이다.
④ 본성의 인이 외부로 드러난다는 것을 간파한 주장이다.
⑤ 본성이 선과 악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라는 것을 무시한 주장이다.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학생의 답변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행복의 실현을 도덕의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 ② 도덕적 가치의 가변성과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 ③ 이성을 통해 감정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 ④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 운명의 적극적인 개척을 강조합니다.
- ⑤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17.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칠정(七情)이 이(理)와 기(氣)를 겸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四端)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아서, 그 발(發)하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主)된 바를 따라 이와 기로 나누어 연결시킬 수 있다.

— <보 기> —

- ㄱ.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 ㄴ. 칠정은 기가 움직여 드러나는 감정이다.
- ㄷ.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연원이 다른 것이다.
- ㄹ.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다음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의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의지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의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

— <보 기> —

- ㄱ. 이성보다 의지가 삶의 본질적 측면이라고 본다.
- ㄴ. 철저하게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 생활을 강조한다.
- ㄷ. 신앙을 통해 삶의 의지를 고취해야 한다고 본다.
- ㄹ. 선의지를 통해 맹목적 의지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은 것은? [3점]

수행 평가

● 문제 : 감, 을 사상가들의 국가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시오.

감: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들은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서로 분쟁한다. 인간들은 경쟁 때문에 약탈하고, 불신 때문에 침략하며, 공명심 때문에 공격한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을: 만약 국가가 시민 사회와 혼동되어 국가의 사명이 개인의 안전과 보호로 축소된다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적으로 국가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국가는 객관적 정신, 즉 인류의 최고 형태이기 때문이다.

● 학생 답안

국가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감은 ㉠ 국가 형성을 위한 사회 계약을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유추하고, ㉡ 개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복지 국가를 주장했다. 을은 ㉢ 인류가 시민 사회인 국가라는 두 단계로만 나뉘어 있다고 보고, ㉣ 개인의 자유가 국가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그런데 두 사상가는 ㉤ 개인과 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같다. ... (후략)...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다음 글에 나타난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도(道)는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다. 땅강아지와 개미에게도 있고 기왓장에도 있으며 똥과 오줌에도 있다. 이처럼 도는 만물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깊은 물 속의 물고기에서 높은 하늘의 새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의 성품이 모두 같으니, 나의 사랑은 산과 골짜기의 세상 끝까지 미친다.

- ①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② 자연 세계의 모든 존재가 지닌 유용성을 중시해야 한다.
- ③ 모든 존재들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
- ④ 생태계의 위계적 질서를 위해 생명 가치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 ⑤ 장기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연을 관리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